





안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걸어온 21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전보건팀 **박 경 호** 과장

벌써부터 더위가 시작된 듯 한낮 기온이 25℃를 웃돌고 있다. 덕분에 신이 난 커다란 가로수들은 널따란 앞을 드리워 그 푸른 기운을 흠뻑리고 있다. 울산행 비행기를 타자 진공 부스 안에 들어온 묘한 기분을 느끼다 나른함과 피곤함에 잠시 잠이 들었다. 기내 안내방송에 잠이 깰 때 비행기는 울산공항을 막 착륙하려던 참이었다. 복잡한 도심을 지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 도착하였다. 처음 가 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그 규모에 놀라며 이곳에서 박경호 과장을 만났다.

올해로 49세인 박경호 과장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후, 부산으로 올라와 대학을 진학하였다. 대학에서 기계설계를 전공한 그는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면서 안전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86년 9월, 이곳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여 보낸 시간이 벌써 21년, 28살의 젊은 청년은 어느덧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입사 초 의욕과 열정으로 뭉친 그는 드넓은 현장을 누비며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원칙에 벗어나는 불안정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상태를 보면 바로 고치고자 교육과 설득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근로자들과 부딪치는 일들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심한 고뇌를 하며 점점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갔다. 근로자들 또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를 적대시하거나 반감을 갖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관리자란 직책으로 근로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선배 안전관리자의 조언과 위로는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과 소신을 어떻게 현실과 조화롭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었다. 2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으며 미소를 짓는다.

그에게 있어 정년이 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자동차업계 안전관리자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자동차 부문에서의 안전관리를 총 망라할 수 있는 자동차업종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각 업종에 따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과 같이 업종에 꼭 맞는 안전관리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 평생을 걸어온 일에 대한 애착과 더 열정적이지 못했던 아쉬움에 대한 반성일 것이라 그는 말한다. 그의 작지만 원대한 소망이 조금씩 현실로 실현되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임재근 기자)